

작물보호協, 신임회장에 한태원 사장 선출

2. 9 「제38차 정기이사회·총회」서, 이사 및 감사도 선임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 제18대 회장에 한태원(54) 한국삼공(주) 사장이 선출됐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 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조 및 원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이사회·총회」를 열고, 2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염병만 회장 후임으로 한국삼공 한태원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또 이날 이사회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 및 감사회원을 각각 선출하는 한편 2010년도 결산승인 및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각각 승인했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한태원 회장은 “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의 돌파구를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세상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선임된 이사회원은 (주)경농, (주)동방아그로, 동부한농(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성보화학(주), 신젠타코리아(주), 한국삼공(주) 등 총 7개사이며, 감사회원은 (주)영일케미칼, (주)LG생명과학이다. 한편 정기이사회에서는 3월 1일자로 안광욱(56) 전 국립식물검역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2011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 개최

약효·약해 639항목, 독성 797약종, 잔류성 691항목 심의



올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등록시험을 위한 「2011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2월 24일~25일까지 양일간 aT센터에서 분야별로 개최됐다.

심의위원 및 시험기관 시험담당자, 업계관계자 등 약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날 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통적인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독성시험 설계심의로 급성 경구 및 경피 각 99약종,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각 98약종, 피부감작성 96약종, 잉어 101약종, 미꾸리 49약종, 물벼룩 유영저해시험 104약종, 미꾸리 야외 포장시험 2약종, 꿀벌 접촉시험 21약종, 꿀벌 섭식시험 9약종, 꿀벌 엽상잔류시험 21약종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또 작물잔류 579항목, 토양잔류 55항목, 수중잔류 57항목에 대한 잔류설계심의회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설계 및 시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이튿날인 25일에 열린 약효·약해시험을 위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살균제 224항목, 살충제 264항목, 제초제 136항목, 생장조정제 15항목 등 총639항목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처리시기 및 방법, 시험장소,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동방아그로, 창립 40주년 기념 새로운 CI 발표 미래 향한 도약의지 담겨, '알바스트로' 형상화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농업의 리더기업으로써 미래를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담아낸 새로운 CI를 발표했다. 신규 CI 디자인은 가장 크고 긴 날개를 가져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새인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형상화 한 것으로 비상하는 알

바트로스처럼 역동적이면서도 유연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비상의 이미지이다.

'알바트로스 심볼'에는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과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화학 전문회사로서의 위상 그리고 항상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업외지가 담겨져 있다.

동방아그로는 지난 40년동안 농화학분야의 리더기업으로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오랜기간 전문화된 경험과 과학적 첨단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농업육성을 위한 전문가적인 기업정신과 농업생산의 향상과 안전한 농화학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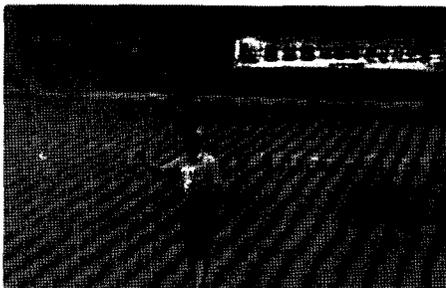
동방아그로, '콩알탄·던저라' 신제형 제초제 선보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는 신제형 수도용제초제인 '콩알탄·던저라 대립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콩알탄·던저라'는 동방아그로의 특허제품으로 직경이 0.5~1cm, 1알당 0.2~0.6g의 형태이며 크기에 따라 눈에 투척시 2~4분안에 눈물위에 약제성분이 골고루 빠르게 퍼지는 제품이다.

또한 직접손으로 살포할 뿐만 아니라 비료살포기 및 무인항공방제에도 가능해 사용방법이 다양하며 간편하여 살포시간 및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편제형 약제이다. 3원 혼합제로 개발되어 저항성잡초는 물론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동방아그로 관계자는 "2011년 본격적인 출시를 위해 이미 전국 200여개소의 전시포를 마쳤고 '콩알탄'의 경우 파일럿 판매에서도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대립제의 편리성 및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국삼공(주)의 ET제와 함께 새로운 생력화 제형의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비경농장학재단, 제6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우수농과대학생 14명에게 2년간 학자금 전액 지원



(주)조비와 (주)경농이 지난 2004년 공동 설립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이사장 이병만)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동 조비·경농 본사에서 제6기 조비경농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올해 선발된 전국 14개 우수농과대학 장학생 14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최이영군 등 전국 14개 대학 14명의 학생들이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다.

선발된 조비경농장학생들에게는 2011~2012년도 2년간 학자금 전액이 지원되고, 또한 졸업 후 조비, 경농 입사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조비경농장학증서는 전국 농과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장학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학생들은 각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우수농과대학생 중 장학금선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의 이병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자원환경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과 인재양성에 달려있다”라며 “농업 발전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훌륭한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방아그로, 2011년 영업지점 순회교육 실시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는 지난 2월14일~17일양일간 전국 지점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제품기술력 향상을 위한 영업지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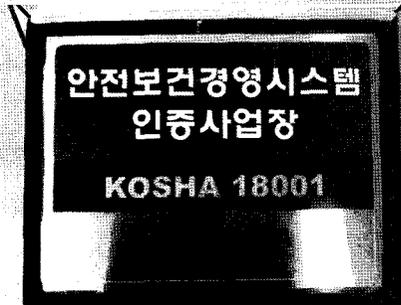
이번 순회교육은 어려운 시장상황에 놓여있는 작물 보호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제품 기술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통해 영업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빠르게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처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 됐다.

동방아그로는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한차원 높은 대농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질높은



기술营업을 통한 고품질의 작물보호제 보급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G한국삼공, 'KOSHA 18001' 인증 획득



SG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KOSHA 18001'은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이 제정한 인증기준에 통과한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수원공장은 공단의 실태확인심사를 거쳐 지난 6개월 동안 각 작업장별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후 공단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지난해 11월 25일 KOSHA 18001 인증을 받았다.

SG한국삼공측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안전보건을 최우선하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산업계 협의회' 연속 개최

2.17-18 공장 및 연구소서,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에 유익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이 부정·불량농약의 유통방지 및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작업 등 농약관리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진청 농자재관리과(과장 이광하)는 지난 2월 17일 부정 불량농약의 유통방지 및 품질이 우수한 농약을 공급하기 위한 「자체검사 책임자 품질관리 설명회」를 (주)영일케미컬 물류센터에서 개최한데 이어 2월 18일에는 작업 중인 농약관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농약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산업계 협의회」를 (주)동부한농 정남연구소에서 개최해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첫날 본사 및 공장의 자체검사책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체검사 책임자 품질관리 설명회」에서는 '2011년 농약품질관리 방향'에 대해 유통 및 품질관리, 제도개선 분야로 나누어 농자재관리과

김광호 사무관의 발표와 '농약의 출하 전 자체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김효경 주사의 발표에 이은 담당자들과의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둘째날 농약 개발 등록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린 「농약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산업계 협의회」에서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품목 등록신청시 시험성적서 면제 기준 등 동일화 품목 인정범위 재정립, 가정원예용 농약 개발 보급 활성화 방안, 농약 분류표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GHS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해 농자재관리과 임양빈 연구관의 설명에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져 매우 유익했다는 평이다.

신젠타, 운송안전 및 서비스 워크숍 개최



신젠타코리아(주)(사장 김용환)는 지난 1월 21일 전북 익산 공장에서 「운송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과 실행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운송안전이 준수되어야만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협력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운송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신젠타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1회이상 운송업체 실태조사 및 운송안전과 서비스 준수여부의 평가를 워크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받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운송안전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회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4회 살균제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식물병리학회 살균제연구회(회장 김병섭)는 지난 2월 17일 충북 대학교 농업과학기술센터에서 회원 9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살균제연구회 심포지엄」을 성대히 개최했다. 김병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주요사업목표로 연구회 '홈페이지' 개설과 '회보' 발간을 설정했다"며 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물바이러스병해 생물검정법 및 식물병해충 예찰과 병해방제에 대해 박은우 서울대 교수와 3명의 발표가 있었고 각 주제별로 참석 회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원에코사이언스, 작물보호협회 준회원 가입

유원에코사이언스(주)(사장 심재영)가 지난 2월 15일 본회에 24번째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유원에코사이언스(주)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서울대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 3동 206호이다. 전화번호는 031-291-6106번, 팩스번호는 031-291-6108번이다.

인사

- 동방아그로 [이사보]△한희수 공장 [부장]△이상철 공장 생산2팀 △김흥기 예산지점 △권영태 자재팀 [부장서리] △윤태영 기술연구소 △송정호 공장관리팀 △강채석 공장 생산1팀 △전병구 공장 품질관리팀
- 영일케미컬 △김무정 영업본부장 · 영업추진팀장 [부장]△이규호 총무인사팀 △홍순근 대전공장 품질관리팀 △김승욱 전남동부지점
- 한국작물보호협회 △한태원 회장 △안광욱 부회장